

집단 의식, 과학은 뭐라 말하는가?

| 로버트 케니 | 주혜명 (지금여기번역위원) 옮김 |

개미들은 집단 의식이 생래적이어서 수많은 개미 군단이 한 개체처럼 움직이며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그러나 인간은 개별성이 너무 강해 함께 무언가를 도모한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로버트 케니는 이 글에서 집합 의식을 일깨워 개인의 경계를 넘어 가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 각자는 개별적 하나이면서 동시에 전체일수도 있는 의식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편집자 주)

(지난호에 이어서)

미세 에너지(subtle energy)의 역할

켄 윌버는 뇌의 기능과 신경생리학에 관련된 현재의 연구를 바탕으로, 물질과 에너지(혹은 물질/에너지)를 의식의 외적, 물리적 두 형태로 간주한다(이해). 생명체가 진화함에 따라 물질/에너지의 상태 혹은 형태는 의식의 각 단계를 반영하면서 점점 더 복잡해진다. 윌버는 물질/에너지를 내적/물리적인 것으로 본다. 그것은 물질을 너머서(물리적인 것을 초월하여), 자연을 너머서(초자연적)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안에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물질/에너지는 진화의 모든

수준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많은 연구자들이 미세 에너지(프라나)라고 간주하는 것은 모든 수준에서 발견될 수 있다. 윌버는 에너지를 거친 에너지, 미세 에너지, 인과적 에너지의 세 종류로 구별한다. 그리고 이 각각은 의식의 특정 단계에 상응한다.

윌버는 네 가지 가설을 제안한다. 그는 이것이 미세 에너지에 대한 개념적 혼란과 문화적으로 조건 지워진 사고의 많은 부분에 대한 혼동을 정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1. 진화가 진전 에 따라 거친 외부적 형태의 복잡성이 증가한다.
2. 형태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것은 내적 의식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
3. 거친 형태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것은 외부 에너지(에너지 패턴이나 장)의 미세함이 증가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4. 거친 형태의 복잡성은 높은 의식과 미세 에너지의 표현 혹은 발현(존재가 아니라)에 필요하다.

윌버는 “미세 에너지 이론의 진정한 시험은 그것이 차크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느냐이다.”라고 믿는다. 많은 연구자들은 비전통적인 치유자들이 사용하는 미세 에너지(전자기장이나 광자 방출과 같은)의 성격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해왔다.

장 효과

그른 것과 옳은 것에 대한 생각 너머에
에너지의 장이 있다.

나는 그곳에서 그대를 만나리.
영혼이 그 폭발 위에 누울 때

세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해진다.

어떠한 생각이나 아름다운 말로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

-알라루딘 루미

많은 연구자들은 개인과 단체가 오감을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아닌, 장 효과를 통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근거없는 주장이 아니다. 자기장, 전기장, 중력장은 모두 “보이지 않지만 멀리까지 영향을 미친다.” 생물학에서 성장하는 생명체 아래 존재하는 형태발생장의 개념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아직 이러한 에너지 장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지 못한다. 성공적인 스포츠 팀 구성원들은 ‘육감’이나 공감, “상대방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능력에 대해 말한다. 컨설팅 경험을 통해서 나는 그룹이나 팀의 구성원들 간에 신뢰와 따뜻한 감정적 연결이 있을 때 조화로운 상태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쉽게 해낸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럴 때는 말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과 접촉이 최소한으로 된다.

루퍼트 셸드레이크(Rupert Sheldrake)는 형성적 인과관계(formative causation)라는 자신의 가설 하에 형태발생장은 형태장이라고 불리는 더 큰 장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형태발생장은 새로운 종류의 장이며 이제까지 물리학이 인식하지 못했다. 이것은 단지 표준적인 기계적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진화하며 역사를 가지고 있고 내재된 기억을 담고 있다. 이것은 형태적 공명(비국소적 영향력,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정보나 활동 패턴의 이동)에 의해 창조된다. 이것들은 “진동 혹은 리듬 활동의 시공적 패턴”을 조직하는 자기조직 시스템 안과 그 주변에 위치한, 영향력의 영역이다. 이것들은 개연성을 가지고 작용하며 성격적 특징, 전체성, “자신의 체계에 내재된 자유의지론에 기반을 둔 질서”를 보여준다.

셸드레이크는 주의(注意)가 지각의 장을 창조하며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를 연결한다고 말한다. 정신적 장은 원격파지(tele-prehensim)와 “확장된

마음”을 설명해준다. 또한 사회적 장은 그 단체 안에 있는 개인의 행동을 조직하고 조정한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도 이러한 이치이다. 켈드레이크는 형태의 공명(‘공명 연결’)이 있기 때문에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우리가 서로의 이미지, 생각, 인상, 감정을 지각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텔레파시와 유사하다. 켈드레이크와 그의 동료들은 많은 실험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실험들은 그의 가설이 참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켈드레이크는, 우리의 마음이 외부로 퍼져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주의’와 ‘의도’라고 믿었다. 사실상 이 글에서 내가 설명하는 연구는 대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감지하는 정신적 장을 창조하고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주의와 의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켈드레이크의 작업은 월버의 모델 및 그의 3단계 가정과 일치한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에너지 장의 미세함은 물질체(형태장)가 더 복잡해지고 의식의 정도가 자라남에 따라 증가한다. 월버는 다음과 같은 의식의 일곱 단계를 제안한다.

1. “거친 에너지는 물리적 장 안에서 자신과 연관된 물질체를 둘러싼다.”
상응하는 의식의 수준: 감각운동적, 물질적
2. 고대 지혜의 전통에 따르면 에테르 에너지 장은 더 확장된 구(球)로써 물리적 장을 둘러싼다. 생명 의식. 의식의 ‘꿈꾸는’ 상태가 시작된다.
3. 앞의 두 에너지 장이 펼쳐지는 것 외에도 아스트랄(강력한 감정적) 에너지 장이 살아 있는 유기체의 경락을 통해 흐른다. 감정적-성적(감정적 프라나적) 의식. 미세 에너지체가 시작.
4. 고대 지혜의 전통에 의하면 정신적(사고) 장 1이 지속된 정신 활동에 의해 생겨난다. 의식의 정신적 수준.
5. 정신적 혹은 사고의 장 2. 더 높은 정신적 의식.
6. 복잡한 신피질의 발달 이후에 인과적 장이 생겨난다. 정신을 넘어선(거의

형태가 없는) 의식. 인과적(아주 미세한) 에너지체. 형태가 없는 의식상태.

7. 비이원적, 초정신적 의식.

형태가 복잡할수록 그 주변에 더 많은 에너지 장이 있다. 월버는 이러한 에너지의 일곱 수준이 고대 전통에서 밀하는 일곱 개의 차크라와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다. 그의 연구는 언뜻 보기에 달라보였던, 현대 연구자들의 용어와 고대 지혜의 전통의 가르침을 통합했다는 점에서 소중하다.

월버의 이론을 현존하는 과학적 지식과 연관해서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거친 에너지 장에는 중력 에너지장, 전자기 에너지장, 강한 핵 에너지장과 약한 핵 에너지장이 포함된다. 전자기 장에는 공간 우주 광선, 감마 광선, x레이,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가 포함된다. 그의 분류체계는 미세 에너지와 집합 의식 장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된다.

월버에 따르면 이러한 에너지 장의 국소적인 면들은 가장 높은 밀도를 가진 영역, 혹은 잘 감지될 수 있는 영역이다. 많은 부분이 특정 도구를 사용했을 때 물리적으로 감지될 수 있으며 정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비전통적 치유자들에 의해 감지될 수 있다. 전자기장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에너지장은 대상을 연결해주는 관찰가능한 물질 없이도, 떨어져 있는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룹 마음’에 의해 창조되는 장이 있을까?

앞서서 나는 이론가들과 연구자들이 집합 의식이 ‘그룹 마음’의 현존을 반영함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우리가 흔히 ‘우리는 하나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응집된 집단과 연결된 통일된 마음이 있을까? 개인이 마음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룹도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 개인이 마음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룹도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월버는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같다'거나 혹은 하나의 개인이나 유기체'이다' 라고 믿지 않는다. 한 집단의 구성원이 같다고 보는 것은 '유기적'인 모델이며 그것이 하나이다 라고 보는 것은 '유기체적' 모델이다. 한 개인은 자신의 부분들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이해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집단 안에서 그 구성원들은 부분이나, 그룹이나 "큰-나(Super-I)"의 지시나 하위 홀론(부분적 전체)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들이 자신의 내적 부분들(개인적 가치관, 의도성 등)이 서로 공명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네트워크나 연합으로서 함께 하기를 선택하며, 공동 창조하는 파트 들이다. 이들은 일련의 목표, 규범 등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동의한다. 월버는 시스템 이론, 환경 철학, 생명의 그물망과 거대한 유기체로서 가이아의 많은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이거나 유기체적인 모델을 채택한다고 믿는다. 이것은 집합체의 내면을 외부체계나 형태로 감소시키고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위를 말소시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월버는 그룹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월버는 집합적인 홀론 혹은 네트워크의 내적인 측면들-내부 교차점들(공유되는 문화적 패턴, 감정, 의미)과 외부의 교차점(공유되는 사회적 행동 규범)들의 총합-이 구성원들의 총합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믿는다. 형태장 안에, 그룹의 집합적 이해 안에, 구성원들의 유전자적 유산 안에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월버는 이것을 '공동연대(solidarity)'라고 부른다. 즉 문화적 배경, 내부의 문화, 집합적인 홀론의 우주적 습관의 상호 주관적 차원, 그러니까 집합적이고 외부적인 형태 에너지장과 연결되어 있는 내면의 느낌, 생태, 사회 시스템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룹 마음을 스스로를 의식하는 집합체의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의식적인 실체로 보지 않는다면(제 의식을 이끄는 리더나 군중의 리더가 행사하는 극단적인 통제와 영향력에 반하여) 아마도 우리는 의식적이고 사려 깊은 교류, 동의, 집단 구성원들의 공유된 의도를 표현하는 그룹의 장(場)이 있음을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역동적 요소들의 구성원에 기반을 둔,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영향력과 힘이다. 이러한 관점은 집단 지혜의 경험에 들어맞는다. 때때로 그룹의 구성원들이 자신 안에 있는 절대영(Spirit)의 의식에 함께 접근하고(위에서 원격과지를 이해하는 월버의 두 번째 매커니즘), 또 어떤 때는 이들이 외부로 발현된, 그리고 내재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적 관점의 다양성과 전체성을 고려하고 끌어안음으로써 지혜에 도달하는 것 같다. 이들의 가슴과 지성의 상호작용은 그룹의 장을 창조한다. 내가 다음에서 언급할 그룹 효과에 대한 드문 연구들 중 일부는 그룹들이 개별적인 장보다 더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장을 창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국소적 장 효과

위에서 간단하게 언급한 베단타-바즈라야나 모델에 따르면(월버는 이것을 자신의 모델에 통합했다) 미세한 물질 에너지(몸마음)는 거친 물질 에너지(몸마음) 없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인과적 몸마음은 그 두 가지 없이 존재할 수 있다. 월버에 따르면 수면 중에 꿈을 꿀 때나 평상적이지 않은 깨어 있는 상태에서(유체이탈 경험이나 ‘아스트랄체 여행’과 같은) 당신은 미세한 몸마음으로서 존재한다. “꿈없는-형태없는 잠” 안에 있을 때나, 형태없는 명상 상태에 있을 때, 혹은 임사 체험을 할 때 당신은 인과적 몸마음으로 존재한다.

특정 에너지장은 특정 형태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 진실이라면 이것은 특정한 비국소적 장 효과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해줄 것이다. 예를 들어 이 글에서 내가 보고하는 사이(Psi; 투시, 텔레파시, 염력 등의 초상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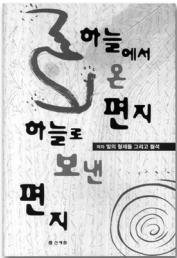
연구에서 거리는 결과의 정확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심장과 연관된 것을 포함하여 전자기장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영역 안에서 작용한다. 의식과 연관된 장은—특히 정신 활동—공간이나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월버는 위의 주장이 이들의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양의 실험적인, 그리고 현상적인 테스트에 문을 여는 것”이라고 믿는다. 월버의 모델에서 미세 에너지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감지될 수 있고, 측정될 수 있는 것”이다. 

- 이 글은 “What Can Science Tell Us About Collective Consciousness?”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로버트 케니**(Robert Kenny, MBA, PhD) | 로버트 케니 박사는 퍼처 연구소의 특별회원이며 LTOC(Leaderful Teams Organizational Consulting)의 설립자이다. 이전에는 21년동안 인적자원 관리이사였다. 그는 집단의 지혜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을 썼으며, 현재 “Change Your Life, Change Your Work: The Transformative Power of Reflective Practice and Inspired Action”이란 책을 집 중이다.

역자 | **주혜명** | 1966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 교육학과를 졸업했다. 미래영성센터 대표. 아토피 마스터로 활동 중이며 케이블 TV 외화 번역을 했고 역서로는 <돈을 끌어오는 마음의 법칙>, <에니어그램의 지혜> 등이 있다.



하늘에서 온 편지, 하늘로 보낸 편지

빛의 형제들 그리고 월석 저 신세림 권 9,000원

이 책은 수련도중 황홀경에 빠졌던 저자가 이후 치유의 능력을 얻고 더불어 자동기술(自動記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나온 메시지들을 묶어놓은 것이다. 알지 못할 에너지에 이끌려 자동으로 쓰여진 내용들에는 앞으로의 지구변화와 그에 대한 준비자세 등이 나오는데 특히 ‘핵무기는 많이 가진 나라일수록 그 폐해는 가혹하리라. 산이 솟고 땅이 꺼질 때 그 재앙을 어찌 감당하라. 가진 자부터 해체분리, 제거하라. 진실로 가진 자에게 이르니...’라는 문구가 인상 깊게 다가온다.